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4년도 제30호

2024 파리올림픽 개막

2024 파리 올림픽이 특별한 이유

한국일보 기사

시사기획창 'WE대한 국가대표'

최선을 다했다면, 이기지 못해도 박수를! [창+]

한성윤 KBS 기자

보물섬남해FC에 경남교육청 "학생합숙 안돼"-남해군 "스포츠클럽법 따라 지역소멸기금 활용"

기숙형 축구 클럽하우스, 교육청-지자체 입장차 피해는 학생이

전병권 오마이뉴스 기사

취재수첩

당신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마준영 영남일보 기자

매일노동뉴스

모두의 운동회, 운동으로 운동하는 이유

박이현 문화연대 대안체육회 활동가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2024.07.24(수) 오후 8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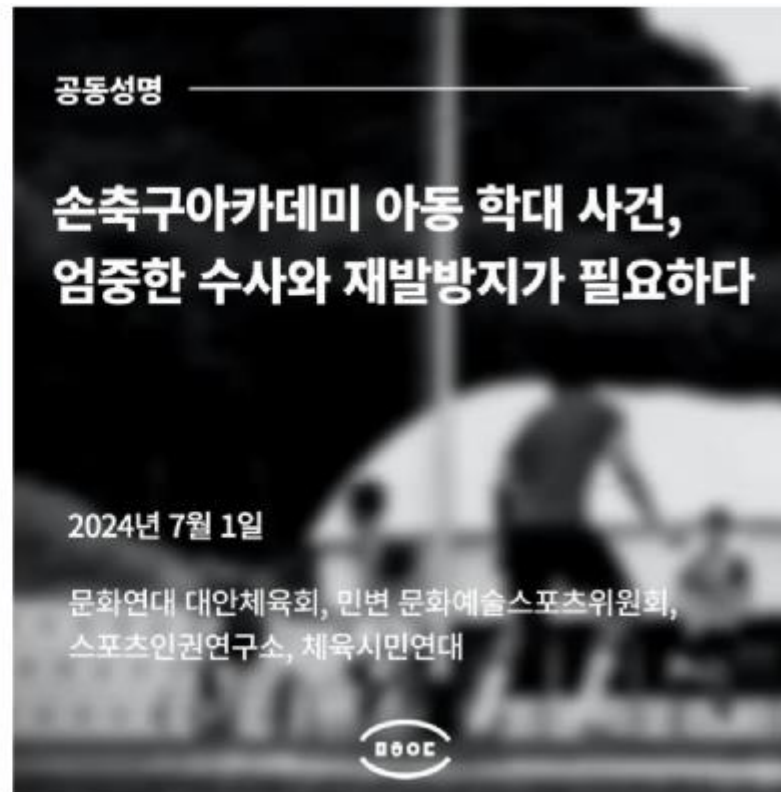
체육시민연대 제5차 집행위원회

보고사항

- 故 최속현 선수 4주기 대응방향 모색
- 뉴스민 X 체육시민연대 공동 유튜브 영상 제작



- 대한테니스협회 관리단체 지정 규탄 성명서 발표
- 손웅정 축구아카데미 폭력사건 경과보고
- 긴급토론회 진행 및 공동성명서 발표, 언론협조 요청 등



논의사항

- 파리올림픽 시즌 아젠다 선정 및 공론화 방향
- 칼럼 / 유튜브 / 캠페인 등 계획
- 손웅정 축구아카데미 경과 및 추후 대응
- 모니터링 지속 / 대안 제시
-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구축
- 영상제작 스튜디오 구축
- 신규 집행위원 추천
- 논의 후 결정

2024 파리 올림픽이 특별한 이유

26일 개막하는 제33회 파리 올림픽은 스포츠계의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사상 최초로 여성과 남성 선수가 동수로 참가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2024 파리 패럴림픽에서도 여성 선수 비율이 사상 최대인 44.4%에 이를 전망입니다.

여성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올림픽에서 여성과 남성 선수의 동수 참여는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파리 올림픽에서 성비를 50대 50으로 맞춘 결정은 의미가 깊습니다. 여성 선수가 올림픽에 처음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1900년으로, 올해와 마찬가지로 파리에서 열린 올림픽이었습니다. 다만 당시 여성 선수 비율은 전체의 2.2%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대표성을 갖추기까지 125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림픽에서 성별 균형을 달성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다는 점은 스포츠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과 여아가 충분한 권한을 누리지 못했던 현실을 반영합니다.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구조적 장벽과 난관들로 인해, 여성과 여아가 스포츠 경기에 참여할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성과 여아가 올림픽 무대에서 꿈을 펼칠 기회를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성별 균형이 달성됐다는 점은 강력한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여성과 여아가 겪던 걸림돌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인류의 진보를 시사합니다.

그러나 올림픽에서의 성별 균형만으로는 만족하기에 이릅니다. 여전히 남은 과제들을 살펴야 합니다. 파리 올림픽이 스포츠계의 성평등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성과 여아의 스포츠 참여율은 여전히 남성과 남아에 비해 뒤집니다. 스포츠계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적은 급여를 받으며,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코치와 트레이너에게도 적용됩니다. 스포츠 협회와 의사결정기관에서 여성의 대표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스포츠청렴성글로벌연합(Sport Integrity Global Alliance)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31개 국제 스포츠 연맹의 임원직 가운데 여성 비율은 26.9%에 불과합니다. 206개 국가올림픽위원회 중 여성 회장이 있는 곳은 24곳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달성한 성별 균형을 전 세계 모든 운동장으로 확장시켜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나며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올림픽의 근본적 존재 목적입니다. 역사적 순간을 맞아 우리의 기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여성과 여아가 자신의 인권을 행사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이기지 못해도 박수를! [창+]

40년 전 올림픽 시상식 장면입니다.
금, 은, 동메달 순서로 거행되는 시상식.

남자유도 김재엽은 은메달을 따고도 침울한 표정입니다.

똑같이 은메달을 딴 뒤에, 시상식을 즐기는 요즘 선수들과는 비교가 됩니다.

<인터뷰> 여홍철/1996 애틀랜타올림픽 체조 은메달
왜 메달을 못땀냐 금메달을 못땀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동메달만 따도 박수쳐주고 이런 사회 분위기가 되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인터뷰> 하태권/ 2000 시드니올림픽 배드민턴 남자복식 동메달
준결승이 끝나고 경기를 패한 다음에 숙소로 돌아왔을 때는 거의 뭐 침울했죠. 제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인터뷰> 장재근/ 진천선수촌장
예전에는 정말 4등하고 그러면 공항 나올 때도 피해나가고, 언제 왔는지도 모르고 이랬는데

이제, 메달을 못 땀다고 고개를 숙일 필요는 없습니다.

메달보다 더 중요한 건, 최선을 다했는가, 그래서 감동을 줬는가로 국민들의 잣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연경/ 전 여자 배구 국가대표
다른 종목에 비해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경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운 좋게 좋은 성적으로 이뤄지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고요.

<인터뷰> 노민재/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4학년
저번 도쿄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메달을 따지 못했던 이상혁 선수가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약간 인기를 더 끌고

<인터뷰> 이종성/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비록 성적이 안나다해도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아낌없이 박수를 보낼 준비가 되어있는 팬들이 훨씬 많으니까요

<인터뷰> 우하람/ 다이빙 국가대표
경기를 마치고 나면 뭐, 조금의 후회가 남기 마련이고, 조금의 아쉬움이 남기 마련인데.
당연히 목표는 메달로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그 메달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돼, 올림픽에 가서는 다 내려놓고 후회없이 경기 해보고 싶어요

<인터뷰> 장재근/ 진천선수촌장
국민들 마음에 감동의 드라마를 써줬기 때문에 그만큼 각광을 받고 사랑을 받은 거예요. 1등을 했으면 더 각광을 받겠죠.

<인터뷰> 허진석/ 한국체육대학교 산업협력본부 교수

문화를 향유하고 즐기고 거기서 종합적 1등을. 우리 마음속의 1등을 골라내는 저마다의 채점 방식을 가지고 말이죠.

혹독한 체력 훈련 끝에, 달콤한 휴식이 찾아왔습니다.

<인터뷰> 김민중/ 유도 국가대표

저희에게 감독님께서 새벽 운동을 쉬라고 이벤트성으로 주시는 날이 있는데 그럴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시대가 흐른 만큼, 훈련 문화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인터뷰> 황희태/ 유도 국가대표 감독

이게 인권이 아니라 자기의 특권인 것처럼 하다보니까.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게 인권인지 뭔지를 잘 분간을 못 했었고. 지금은 자리가 잘 잡혀가고 있고

<인터뷰> 정지현/ 2004 아테네올림픽 레슬링 금메달

훈련량이 어마어마했죠. 정말 하루하루를 견디기 힘든 그런 훈련을 했었는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예전에 50% 정도 60% 정도밖에 지금 안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

<인터뷰> 김광선/ 1988 서울올림픽 복싱 금메달

일단 체력적으로도 밀리고 선 체력 후 기술인데 체력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기술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선불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식이 조금 바뀌었다고 본질마저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자 단식 세계 랭킹1위 안세영은 누구보다 훈련을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인터뷰> 안세영/ 배드민턴 국가대표

잘 뛰는 게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공격으로 많이 이기는 포인트가 없다고 생각해서 뛰면서 상대를 지치게 하고 이런 게 저의 배드민턴 스타일이지 않나 싶은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밤에 별 보는 시간조차도 저에게는 힘듦으로 다가와서 좀 안 보고 있었는데 밤에 별보다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한 마음으로 이제 좋은 날씨를 느끼는 게 저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드민턴 그랜드 슬램을 이루고 싶다. 이런 목표를 말을 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말을 하고 꿈을 꾸니까 하나씩. 하나 둘씩 이루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파리 올림픽은 저에게 마지막 퍼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운동,

MZ로 불리는 이 선수들에게 훈련보다 더 강력한 동기부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기숙형 축구 클럽하우스, 교육청-지자체 입장차 피해는 학생이

경남 남해군이 서면 스포츠파크 내에 건립 중인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를 두고 '위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군민들은 이같은 비판과 의혹을 제기해 왔고, 지난 6월 중순부터 여러 신문과 방송에까지 보도됐다.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목적, 즉 클럽하우스 준공 후 학생들이 상시 거주한다는 내용과 학생 선수들의 위장전입이다.

남해군은 2022년 8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98억 원을 확보해 전액 국비로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물은 2024년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5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건축면적 1097㎡,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보물섬남해FC 정체성

보물섬남해FC는 과거 남해초등학교 축구부로 시작했으며, 경상남도교육청의 학교 운동부 합숙 금지 정책에 따라 2020년 10월 19일 사단법인 보물섬남해스포츠클럽으로 전환·설립됐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증한 지정스포츠클럽이며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단체기도 하다.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는 학생 선수들이 기숙하면서 각 학교로 통학하고, 축구훈련을 하며 휴식하는 등 생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보물섬남해FC는 초등학생의 경우 남해초등학교, 중학생은 이동중학교, 고등학생은 창선고등학교에 학적을 두고 있다.

교육청, 학교체육진흥법 타당한가

경남도교육청은 고등학생은 제외하더라도 초·중학생들은 합숙을 반대한다고 주장하면서, 학생선수가 부모(보호자·친권자)와 함께 전입·거주하며 생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장전입과 학구 위반 등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다음 장 계속

근거로는 '학교체육진흥법'을 들었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4항에는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생선수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덧붙여 11조 5항에는 "학교의 장은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학교체육진흥법' 내용 중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은 엄연히 따져보면 강제 의미가 빠져있으며, 이는 곧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도 불분명할 수 있기에 기준이 모호한 문장이다.

남해군 입장

지난 22일 남해군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남해시대>에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는 '학교체육진흥법'이 아닌 '스포츠클럽법'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를 근거로 공모사업에 선정돼 건립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스포츠클럽법' 제10조 5항은 다음과 같다. "지정스포츠클럽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회원 선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즉, 교육청과 남해군 두 기관이 근거로 삼는 법이 다른 상황이다.

보물섬남해FC 관계자는 "이런 논란이 발생해 안타깝다. 학생들과 학부모를 비롯해 외지에 있는 분들도 연락이 와서 이 상황에 대해 문의한다"며 "조속히 이 문제가 해결돼 학생과 학부모 등 많은 분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도, 최악의 상황에도 피해는 결국 학생이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가 계획대로 내년 중순에 준공되면 약 180명의 학생이 기숙할 예정이다.

현 상황에서 한쪽 법 편에 서서 위법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기에 법과 제도 개선에 방향을 맞춰야 한다. 또한 위장전입을 비판하는 근거에 대해서도, 도시와 농어촌간 차이가 있고 기준도 애매하기에 개선돼야 한다. 이는 남해군과 교육청, 국회의원, 체육회, 축구협회 등 민관이 뜻을 모아야 한다.

본질적인 문제는 이 논란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외지에서 남해로 전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도 그렇지만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면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아이들이다.

[취재수첩] 당신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영남일보
마준영 기자 2024.07.29



지난달 26일은 고(故) 최숙현 선수가 세상을 등진 지 4주기가 되는 날이다. 최고의 철인을 꿈꿔왔던 최 선수의 아픔과 체육계의 문제에 대해 경쟁적으로 보도하던 언론도 올해는 기사를 찾기 어려울 만큼 조용하다.

최 선수에 관한 관심은 점점 시들어가고 있지만 그가 태어나고 자란 경북 칠곡군에서만큼은 추모 열기가 뜨거웠다. 지역 곳곳에는 최 선수를 추모하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SNS에도 글이 올라왔다.

특히 김용옥 칠곡국민체육센터장이 SNS에 올린 글에는 많은 칠곡군민이 댓글을 달며 최 선수의 명복을 빌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댓글에는 '우리의 예쁜 따님이 그렇게 떠나고 세월이 무심하게 흘렀다. 정정당당한 체육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늘 기억하고 애도하며 재발 방지 대책이 절실하다'라며 추모와 함께 체육계를 걱정하는 글도 달렸다.

최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는 아직도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과 분노로 남아 있다.

검찰, 경찰, 대한체육회 등 7곳의 기관에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애타게 하소연했지만, 그 어디도 나서는 데가 없었다. 최 선수 사후 지난 3년간 가해 당사자인 운동처방사와 감독, 선배 선수는 각각 징역 8년, 7년, 4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고, 체육계 인권 개선을 위한 최숙현법과 스포츠윤리센터가 제정, 설치됐다.

엄한 처벌과 법·제도가 확립돼 체육계 약자들에 대한 보호와 구제가 개선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최 선수 사후에도 실업 선수 7명 중 한 명이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 비위 유형 총 198건 중 가장 많은 51건(26%)이 선수 폭력 사건이었다. 폭행, 성폭행, 길들이기, 학습권 침해 등 주로 선수들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는 최 선수 사망 이후에도 고질적인 체육계 문제로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해에는 전남 광주의 한 고교 운동부 코치 A씨가 제자 폭행에 이어 그의 어머니를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운동부 선수로 활동하던 B학생을 양말이 더럽다거나 친구와 장난을 친다는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A씨는 학부모들과 식사를 하던 중 B학생의 어머니를 따로 불러낸 뒤 허리를 두 차례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선수를 잊어서일까. A씨와 유사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 모두가 그날의 아픈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잊힌다면 또 다른 소중한 아들과 딸들이 제2의 최 선수가 될 수 있다.



모두의 운동회, 운동으로 운동하는 이유

기자들은 매일 '노동' 뉴스만 전해야 하는 비극을 겪고 있다는데, 실은 사회운동 활동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스포츠로 '매일 노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조금은 슬프고 조금은 절망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려 한다.

“그 사람들 죄를 밝혀 줘”

2020년, 철인3종 경기 최숙현 선수가 감독·팀닥터·선배 선수의 폭력으로 세상을 떠나며 남긴 말이다. 체육계에서는 영웅신화에 가리워진 반인권적인 사건이 반복됐다. 2018년부터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력 사건을 비롯해 다양한 스포츠 미투가 이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이 출범했고, 체육 분야의 구조적 혁신을 위한 민관합동기구 스포츠혁신위원회도 출범했다.

소정의 성과는 있었지만, 체육계는 십사리 바뀌지 않았다. 대한체육회와 경기단체 중심으로 짜인 폐쇄적인 체육계는 생각 이상으로 공고했다.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선 폭력을 감내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최근 손축구 아카데미 스포츠 폭력 사태에서도, 몇몇 누리꾼들은 비슷한 논리로 가해자를 옹호하곤 했다. 더 많은 폭력과 죽음을 막기 위해 혁신을 외치는 사람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체육계를 넘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사회운동이 필요했다.

내가 소속된 문화연대 대안체육회에선 이와 같은 배경에서 2021년부터 스포츠 시민운동을 조직하기로 했다. 폭로와 제도 개혁을 넘어, 스포츠 현장 및 시민사회 곳곳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동료들 더 많이 만들 필요가 있었다. 그때부터 영웅 서사를 넘어 스포츠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의 이야기를 담은 웹진 '움직' 발행, 체육계 시민단체를 넘어 다양한 시민 및 사회운동단체가 함께할 수 있는 네트워크 '모두의 운동회 조직위원회' 조직,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함께하는 스포츠를 위한 '모두의 운동회' 행사를 진행하였다. 대학 청소노동자 스포츠권을 위한 프로젝트 '호호체육관'도 같은 문제의식 아래 출발한 사업이다.

스포츠 시민운동 네트워크 초동모임

'모두의 스포츠' 밑그림을 그리다

스포츠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지만, 누군가는 여기서 배제돼 있다. 장애인, 퀴어, 그리고 비인간주체 등 '모두의 스포츠'를 실천하기 위해 퀴어여성네트워크·녹색연합·체육시민연대·민변·전국체육교사모임·위밋업스포츠·장애인운동 활동가 등 다양한 단체와 개인이 모였다.

다음 장 계속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두'의 운동회가 가능할까? 나이·성별·장애와 무관하게, 환경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행사를 만들 수 있을까?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나을지 모른다. 참고할 사례도 많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깨달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럴듯한 답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향유하는 스포츠'가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고 최대한의 조건을 상상하는 일이라는 걸.

그 첫걸음의 일환으로 모두의 운동회 가이드북을 함께 만들었다. '모두의 운동회를 위한 선언'부터 시작해 환경을 착취하지 않는,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 장애를 차별하지 않는, 'LGBTAIQ'를 차별하지 않는 운동회를 위한 방법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합치는 운동의 본질에 주목하다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운동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기존 스포츠 종목을 수정하기보다는 놀이와 운동 관점에서 다시 접근했다. 경쟁이 아니라 '몸을 쓰는 일'이라는 본질에 초점을 맞췄다. 평소 주민들과 연극 기반의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다양한 운동회를 진행해 온 협동조합 마을온예술의 기획자 노디가 프로그램 기획에 큰 기여를 했다. 다양한 연령대 참여자와 신체활동을 진행해 본 경험을 반영해, 체력과 전문성의 차이를 넘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했다.

“원래 놀이나 스포츠는 우승이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잖아요. 선의의 경쟁이라 하더라도 승리에 대한 욕구가 생기기 마련이지요. 다만 '모두의 운동회'는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을지 그 의미를 소중하게 한번 더 되짚어 보고 이를 담아내고자 해요.”

'모두의 운동회'를 기획한 노디의 말을 따라, 우리는 '모두 선언'으로 시작해 다양한 모둠 활동과 팀 미션 올림픽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빨강팀·파랑팀·초록팀으로 나눠 개인 간 경쟁보다 팀 간의 협동을 중심으로 한 놀이를 배치했다. 프로그램 마지막, 모두를 위한 시상식에선 순위를 매기기보다 좋은 에너지를 나눠 준 참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한 참가자는 평소 운동을 잘 못해 하기 싫어했지만, 모두의 운동회에서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사회운동을 하다 보면 가끔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가 된 기분이 들곤 한다. 사회 곳곳에서 비극적인 사건은 계속 터지는데, 손은 부족하고 활동가들은 본질적인 문제를 쉬이 해결하지 못하고 더욱 급해 보이는 사건으로 옮겨다녀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건강을 위해선 가정의학과 같은 사회운동도 분명 필요하다. 나는 모두의 운동회가 스포츠 인권운동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대안적이고 민주적인 스포츠를 몸으로 경험하고 동료와 힘을 합쳐 땀을 흘려 본 사람이라면, 그가 인권의 편에 설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그게 우리 문화연대 대안체육회가 운동(exercise)을 통해 운동(movement)하는 이유다.

주간 스포츠 소식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이용자 2만 명 돌파

<https://mydaily.co.kr/page/view/2024072908433341015>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 거버넌스 공정성 강화 포럼 개최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17831&ref=A>

경북도장애인체육회 2024년 스포츠지도 안전관리 교육 개최

<https://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53542>

[파리 2024] 자국 여성선수 히잡 착용 금지한 프랑스에 뿔난 국제인권단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725010016366>

사우디에서 'e스포츠 올림픽' 열린다... '스포츠 워싱' 비판도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601>

[매경TV Who Is?] 올림픽 영웅 '후' - '탁구 전설' 현정화, 청렴한 스포츠 생태계 위해 뛰다

https://mbnmoney.mbn.co.kr/news/view?news_no=MM1005295363

야유 쏟아진 축구, 얼굴엔 '레이저 공격'...이스라엘 올림픽 대표단 수모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72511321953495>

[미술레잡기] 공정한 올림픽이라는 꿈

<https://www.mk.co.kr/news/contributors/11078049>

"야구장은 선수들의 놀이터" ...김장군 서천군 감독, 적극적인 '소통'→아이들에게 즐거움 선사한다 [MD배]

<https://mydaily.co.kr/page/view/2024072119423068959>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